

맞벌이 夫婦의 公平性 認知 · 意思決定 參與度 및 家庭生活滿足度

Perception of Equity · Decision-Making Sty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 Dual-Career Couple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박사 강 기 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Jeong Woo Lee

Doctor : Ki Yeon 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On the basis of the equity theory, as the couple perceives their relationship is equitable, they tend to make decisions jointly and ar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liv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equity, decision-making sty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 dual-career coup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it shows that many socioeconomic · psychological variables have direct · indirect impa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medium factor, so this study proves the application of the cause-effect model.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equity of wives were higher than husbands.

주제어(Key Words): 맞벌이 부부(dual-career couple), 공평성 인지(perception of equity), 의사결정 참여도(decision-making style), 가정생활만족도(family life satisfaction)

I. 서론

최근 들어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자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평성에 대한 부부들 특히 여성들의 요구수준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관계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공평성' 문제가 관심 있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공평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공평성의 개념이 맞벌이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적절하다고 밝혔다(Gilbert, 1988; Rachlin, 1987). 또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맞벌이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는 역할갈등으로 빚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며, 부부의 적응 및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nding, 1995; Kimball, 1983; Rachlin, 1987; Risman & Johnson-Sumerford, 1998; Sanfilippo, 1997; Wiersma & Van den Berg, 1991).

한편 공평성 연구의 발전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공평성의 개념 또는 공평성 이론을 적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공평하거나 균형 있는 의사결정 유형을 가질 때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garozzi, 1990; Halloran, 1998; Lindahl & Malik, 1999; Mirowsky, 1985; Sprecher & Felmlee, 1997). 또한 다수의 연구(Risman & Johnson-Sumerford, 1998; Sexton & Perlman, 1989)에서 맞벌이 남편 또는 부인이 가족역할 분담에 대해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공동의사결정 비율이 높고 결혼생활에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부부 공평성 연구의 역사는 극히 짧아서 조정문(1995),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박정희(1998), 차성란(1998), 이정우·강기연(2000)의 연구가 발표된 정도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공평성을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21세기에는 사회 전반에서 공평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부부간 공

평성 여부는 가정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과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가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보는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Traupmann 등(1981)의 척도를 수정하여 정서적·일상생활 공평성을 살피고, Walster 등(1978)의 척도를 이용하여 결혼 공평성을 조사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수준을 평가하고, 공평성 인지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평성 인지도,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에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족분야 연구에 주로 사용되어온 부부 공평성의 개념을 가정관리 분야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맞벌이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 공평성을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Gilbert, 1988; Rachlin, 1987) 부부 평등성의 개념보다 공평성 인지가 맞벌이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더 적절한 개념이며 결혼 및 가정생활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맞벌이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는 부부의 적응 및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직/일반직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Rachlin(1987)의 연구에서, 공평성 인지도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 Risman과 Johnson-Sumerford(1998)도 공평성 인지도가 '성을 초월한 부부(postgenderd couple)'의

부부관계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미국 33개 주와 캐나다 3개 주에 살고 있는 150쌍의 '평등결혼'의 예를 소개한 Kimball(1983)의 연구에서, 공평성은 이들 부부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afer와 Keith(1981)의 연구에서도 공평성과 우울 간에 부적의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취업부인의 우울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Sanfilippo(1997)는 공평성 · 자아개념 · 노동분담 · 남편의 직업지위 등이 은퇴기 취업주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개념과 공평성 변인이 결혼만족의 강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공평성 · 주간 근무시간 · 가사노동 분담이 부부 · 부모 ·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Blanding(1995)의 연구에서도 상대적 공평성 변인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Wiersma와 Van den Berg(1991)도 맞벌이 결혼에서 공평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과다한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반면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 113쌍을 대상으로 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한 Geasler(1990)의 연구에서도 결혼생활에 대한 불공평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복지감이 낮고 디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맞벌이 부부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가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사결정 참여도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부인의 취업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anes 등(1998)은 로만 카톨릭에 뿌리를 둔 사회 · 문화적 규범이 강한 파나마의 가부장 가족 52쌍을 대상으로 가족 의사결정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부인의 취업과 교육수준은 부인의 의사결정 수행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홀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 유형을 연구한

Shukla(1987), Shukla · Kapoor(1990)의 연구에서도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며 취업주부의 남편은 비취업주부의 남편보다 권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DeMaris와 Longmore(1996)의 연구에 따르면, 대안이 더 많은 취업부인이 권력을 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사일을 협상하며 의사결정에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owell(1995)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수입이 부인의 수입보다 웃도는 31쌍과 반대로 부인의 수입이 더 많은 31쌍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권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을 의사결정권을 통제하는 데 사용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이론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소득과 직업 지위가 남편보다 높거나/남편의 소득 · 지위가 부인보다 높은(cross-class) 부부' 30쌍을 대상으로 부부 권력을 연구한 Tichenor(1999)에 따르면, 부인의 지위가 남편보다 높은(status-reversal) 부부에서 재정관련 결정을 제외하고는 소득과 지위 변인이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authier 등(1993)의 연구에서도 부인이 전문 · 관리직에 종사할 때, 의사결정에서 남편 우위의 유형은 감소하지만, 평등주의 또는 부인 우위의 유형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이론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간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맞벌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중요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3. 맞벌이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의사결정과 공평성은 사회교환 이론의 중심 주제로서 최근 들어 몇몇 연구에서 이들간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은 의사결정권의 분배가 각 배우자의 만족 및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간에 공평한 또는 균형 있는 의사결정 유형을 가질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디프레션과 부부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Halloran(1998)은 부부권력에서의 불공평성을 제3의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부권력에서 불공평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과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dahl과 Malik(1999)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간에 권력이나 통제력에서 균형을 이루는 의사결정 유형일 때 상호 존중과 호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rowsky(1985)도 남편과 부인 모두 그들 자신이 지나치게 권력 지향적일 때보다는 부부간의 권력이 균형을 이룰 때 우울의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garozzi(1990)의 연구에서도 부부권력의 불공평성은 정신적 증상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우울 증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여러 연구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공평성 인지의 정도가 실제로 의사결정권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편 또는 부인이 가족역할 분담에 대해 공평하다고 평가할 때 의사결정 공동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강기연, 2000; Rachlin, 1987; Risman & Johnson-Sumerford, 1998; Sexton & Perlman, 1989).

이상의 고찰을 통해 맞벌이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4. 맞벌이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의사결정 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최근 관계만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파트너들 간에 '보상과 대가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인지'라는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VanYperen & Buunk, 1990).

많은 연구에서 공평성 인지도가 부부의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 및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으며(문숙재

등, 1997; 조정문, 1994; Aida & Falbo, 1991; Blanding, 1995; Desmarais & Lerner, 1989; Geasler, 1990; Kimball, 1983; Sanfilippo, 1997; VanYperen & Buunk, 1990), 행복도가 높고(Wiersma & Van den Berg, 1991),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Schafer, Keith & Lorenz, 1984), 디스트레스가 낮고(MaQuillan, 1998), 결혼적응(Rachlin, 1985)과 전반적 복지감(Hatfield & Traupmann, 1981)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에 대한 불공평성 인지도(특히 불리한 경우)는 부부의 정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부부 복지감이 낮으며, 디스트레스가 높고(Geasler, 1990; Rachlin, 1985), 디프레션을 더 느끼며(Schafer & Keith, 1980; Wiersma & Van den Berg, 1991), 결혼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Davidson, 1984).

한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대부분 의사결정권의 분배가 부부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결혼 및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Aida & Falbo, 1991; Blood & Wolfe, 1960; Gray-Little & Burks, 1983; Lindahl & Malik, 1999; Zvonkovic & Schmiege, 1994). 특히, Gray-Little과 Burks(1983)는 의사결정 유형과 결혼만족 간에 관계를 측정된 12편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8개 연구에서 의사결정을 동등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은퇴 후 부부의 적응도가 높아지며(Suitor, 1991), 복지감이 높고(Steil, 1997), 부부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recher & Felmlee, 1997). 임정빈(1988)의 연구에서는 인간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때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결정 공동참여도가 낮을수록 부인의 우울 정도가 더 높으며(McQuillan, 1998; Bagarozzi, 1990), 디스트레스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ida & Falbo, 1991).

한편 몇몇 연구들은 남편-우위의 의사결정 유형과 결혼만족도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Shukla와 Kapoor(1990)의 연구에서는 공동의사

결정과 남편-우위 의사결정 유형에서 부인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teil(1997)의 연구에서는 남편-우위 의사결정 유형을 지닌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부인-우위의 의사결정 유형일 때 남편 및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lood & Wolfe 1960; Gray-Little & Burks, 1983).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첫째, 남편이 가장으로서 기대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둘째, 남편 지배의 전통적 규범과 부부평등의 현대적 규범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맞벌이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와 맞벌이 부부간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수로 나타났다.¹⁾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공평성 인지도,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공평성 인지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수(배경변인, 공평성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도 ·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남편과 부인의 연령, 학력, 자녀수, 직업 유형, 소득, 주당 총 근무시간, 가계총소득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심리적 변인으로는 성역할 태도(9문항),

자원적정인지도(6문항), 의사소통도(6문항), 직업만족도(3문항) 변인을 선정하였다.

1) 공평성 인지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 일상생활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합산적 기여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즉 Traupmann 등(1981)이 개발한 TUW: Traupmann-Utne-Walster Scales of Input, Outcome, and Equity/Inequity 중 투입 문항만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서적 영역 9개 문항, 일상생활 영역 7개 문항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 일상생활 공평성 인지척도를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여 정도와 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4)'로부터 '전적으로 그렇다(+4)'까지 8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공평성 점수는 배우자의 점수에서 자신의 점수를 빼는 방법으로 구하였으며, 계산된 점수가 -5~+5이면 응답자가 배우자와 공평한(equitable) 관계에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5보다 작으면 불리한(under-benefited), +5보다 크면 유리한(over-benefited) 관계로 해석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맞벌이 남편 .91, 맞벌이 부인 .95이다.

한편 결혼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체적 측정 방법인 Walster 등(1978)의 Global Measure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nputs, Outcomes, and Equity/Inequity의 문항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문항(①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몇몇 기회들을 포기하였다(예: 이성친구, 직업, 여행하기, 학업 중단 등) ② 나의 배우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몇몇 기회들을 포기하였다(예: 이성친구, 직업, 여행하기, 학업 중단 등) ③ 나는 결혼함으로써 인생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예: 부모 됨, 노후를 의지할 배우자가 있음) ④ 나의 배우자는 결혼함으로써 인생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갖

1) 공평성 인지도, 의사결정 참여도,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고찰은 박사학위 논문 참조.

게 되었다(예: 부모 됨, 노후를 의지할 배우자가 있음)을 질문하며, 응답범주는 정서적·일상생활 공평성과 같다. 응답자의 공평성 점수가 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공평성 점수보다 큰 경우에 유리한, 반대의 경우는 불리한으로, 응답자의 공평성 점수와 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공평성 점수가 같은 경우 공평한 관계로 해석한다.²⁾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맞벌이 남편 .92, 맞벌이 부인 .93이다.

2) 의사결정 참여도

의사결정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Blood와 Wolfe (1960)의 부부권력지표(Marital Power Inventory/MPI)와 Zvonkovic·Greaves(1996)의 직업 및 가족 의사결정 문항을 참고로 하여 21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의사결정 항목에 대해 '항상 남편' 1점으로부터 '항상 부인' 5점까지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했다. 이를 다시 '부부공동'에 3점, '대체로 남편'과 '대체로 부인'에 2점, '항상 남편'과 '항상 부인'에 1점으로 재 점수화 하여 3점에 가까울수록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맞벌이 남편 .78, 맞벌이 부인 .80이다.

3)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는 Hays와 Stinnett(1976)의 중년기 생활만족 척도(MYLSS),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 척도(SWLS), Schumm 등(1986)의 켄사스 가정생활만족 척도(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를 참조하여 12문항을 작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맞벌이 남편 .92, 맞벌이 부인 .94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남편 또는 부인(부부도 포함)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1999년 9월 2일~10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남편과 부인의 직종을 고려하여 배부된 총 560부(맞벌이 남편: 280부, 맞벌이 부인: 280부)의 설문지 중 540부를 회수하였으나, 총 500부(맞벌이 남편: 250부, 맞벌이 부인: 250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AS/PC⁺를 이용하였다. Cronbach' α 계수,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Pearson'r,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평균연령이 40.3세이며, 대졸이상이 79.2%를 차지하였고,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유형은 사무직 52.9%, 관리·전문직은 47.3%로 나타났다. 평균 가계총소득은 423만원이며, 본인의 평균소득은 280만원, 주당 총 근무시간은 평균 51.3시간이었다. 맞벌이 부인의 경우는 평균연령이 36.9세이며, 대졸이상이 75.8%를 차지하였고,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과 관리·전문직의 비율은 각각 54.2%와 45.8%로 나타났다. 평균 가계총소득은 401만원이며, 본인의 평균소득은 187만원, 주당 총 근무시간은 평균 47.6시간이었다.

또한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의 성역할태도의 평균은 각각 3.07점과 3.45점, 자원적정인지도의 평균은 3.47점과 3.39점, 의사소통도의 평균은 3.51점과 3.59점, 직업만족도는 3.25점과 3.31점으로 나타났다 <표 2>.

2) 결혼 공평성 척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사논문에 있음.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 인	구 분	맞벌이 남편 (N = 250)		맞벌이 부인 (N = 250)	
		빈 도	%	빈 도	%
연 령	28 ~ 35세	76	30.3	98	39.2
	36 ~ 45세	105	41.8	110	44.1
	46세 이상	69	27.9	42	16.7
학 령	고 졸	18	7.4	20	8.2
	전문대졸	34	13.5	40	16.0
	대 졸	155	62.1	154	61.5
	대학원 이상	43	17.0	36	14.3
자녀수	1 명	92	36.8	97	38.7
	2 명	125	50.0	122	48.7
	3명 이상	33	13.2	31	12.6
직업 유형	사무직	132	52.9	135	54.2
	관리 · 전문직	118	47.3	115	45.8
가계 총소득	200만원 미만	26	10.3	27	10.6
	200~300 미만	38	15.2	31	12.2
	300~400 미만	75	30.0	81	32.5
	400~500 미만	51	20.5	63	25.2
	500~600 미만	34	13.6	28	11.4
	600만원 이상	26	10.4	20	8.1
본인의 소득	100만원 미만	12	4.8	32	12.8
	100~200 미만	72	28.8	101	40.4
	200~300 미만	94	37.6	80	32.0
	300만원 이상	72	28.8	37	14.8
주당 총 근무시간	45시간 이하	86	34.4	117	46.7
	46~55시간	97	38.8	96	38.3
	56시간 이상	67	26.8	37	15.0

<표 2> 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변 인	맞벌이 남편		맞벌이 부인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 태도	3.07	.59	3.45	.59	7.06***
자원적정인지도	3.47	.50	3.39	.57	1.87**
의사소통도	3.51	.46	3.59	.53	3.28**
직업만족도	3.25	.64	3.31	.63	1.08*

*p<.05 **p<.01 ***p<.001

한편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의 공평성 인지도를 살펴볼 때, 남편의 공평성 인지점수가 부인의 공평성 인지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또한 공평성 인지점수를 이용하여 공평성 · 불공평성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공평성 인지도에서는 남편과 부

인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불공평성 인지도에서는 남편의 경우 유리한 관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부인의 경우는 불리한 관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

한편 의사결정 참여도의 경우, 남편의 평균은 2.42

〈표 3〉 공평성 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I

변 인	맞벌이 남편		맞벌이 부인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공평성	.25	.74	.01	.66	3.56***
일상생활 공평성	.54	.93	.45	1.01	8.72***
결혼 공평성	.19	1.72	-.55	2.05	4.34***

※ 공평성 인지도의 평균이 0에 근접할수록 '공평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방향으로 높아질수록 '유리함'을, -방향으로 커질수록 '불리함'을 의미함.

*p<.05 **p<.01 ***p<.001

〈표 4〉 공평성 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II

구 분			정서적 공평성	일상생활 공평성	결혼 공평성
			N(%)	N(%)	N(%)
공평성 인지도	공평한 관계	남편	158(64.8)	138(54.4)	157(63.8)
		부인	163(66.4)	121(49.2)	151(61.0)
불공평성 인지도	불리한 관계	남편	24(9.6)	16(6.4)	41(16.8)
		부인	46(18.0)	96(38.4)	70(28.0)
	유리한 관계	남편	63(25.6)	96(39.2)	48(19.5)
		부인	30(15.6)	31(12.4)	27(11.0)

〈표 5〉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변 인		맞벌이 남편		맞벌이 부인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결정 참여도 ^{a)}	재정	2.49	.38	2.51	.40	1.51
	주생활	2.43	.35	2.44	.32	2.45
	자녀관련	2.53	.39	2.61	.48	1.08***
	의·식생활	2.12	.35	2.21	.36	.33*
	직업 및 여가	2.58	.37	2.61	.34	4.86
	전 체	2.42	.24	2.49	.24	3.02*
가정생활 만족도 ^{b)}	재정	3.05	.74	3.19	.82	1.94*
	부부관계	3.70	.64	3.59	.84	1.58***
	자녀와의 대화	3.64	.59	3.56	.66	1.27*
	가족간 대화	3.51	.65	3.53	.75	.41
	여가활동	3.03	.69	2.95	.75	1.65*
	가정생활 전반	3.76	.65	3.58	.78	2.72**
전 체	3.43	.42	3.37	.54	1.42***	

*p<.05 **p<.01 ***p<.001

a) 의사결정 참여도는 3점 만점임.

b) 가정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임.

점, 부인은 2.49점으로서 남편과 부인 모두 가정 내 의사결정에 대한 공동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만족도의 경우도 각각 평균 3.43점과 3.37점을 보여 맞벌이 남편과 부인 모두 대

체로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 公平性 인지도에 따른 의사결정 참여도

조사대상 남편과 부인의 公平性 인지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맞벌이 남편의 公平性 인지도에 따른 의사결정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생활에 대한 남편의 公平性 인지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정서적(p<.001) 및 일상생활(p<.001)에 대한 公平性 인지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결혼 公平性 인지도에서는 집단간에 의사결정 참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맞벌이 부인의 경우도 결혼생활에 대한 公平性 인지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정서적(p<.001) 및 일상생활(p<.001)에 대한 公平性 인지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결혼 公平性 인지도에서도 집단간에 의사결정 참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맞벌이 남편과 부인 모두 배우자와 公平한 관계에 있다고 인지할 때 의사결정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公平性 인지도가 맞벌이 부부의 공동 의사결정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이 밝혀졌다.

3. 맞벌이 남편의 배경변인, 公平性 인지도,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맞벌이 남편의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와 같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背景변인이 公平性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를 경유하여 종속변인인 가정생활만족도에 작용하는 인과효과는 <표 8>과 같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40을 넘지 않아 투입된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맞벌이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10개의 背景변인(11개의 변인 중 10개 변인)이 公平性 인지도 변인(2개 변인)과 의사결정 참여도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맞벌이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背景변인 중 의사소통도($\beta=.59$), 자원 적정인지도($\beta=.35$), 직업만족도($\beta=.24$), 연령($\beta=-.21$) 등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인 중 의사결정 참여

<표 6> 公平性 인지도에 따른 의사결정 참여도

(의사결정 참여도 3점만점)

公平性 인지도		맞벌이 남편			맞벌이 부인		
		평균	Duncan	F 값	평균	Duncan	F 값
정서적 公平性	불리한 관계	2.37	B	4.03***	2.42	B	4.55***
	공평한 관계	2.45	A		2.54	A	
	유리한 관계	2.32	AB		2.45	AB	
일상생활 公平性	불리한 관계	2.37	B	6.95***	2.40	B	9.69***
	공평한 관계	2.49	A		2.54	A	
	유리한 관계	2.37	B		2.53	A	
결혼 公平性	불리한 관계	2.35		2.01	2.40	B	3.04**
	공평한 관계	2.45			2.51	A	
	유리한 관계	2.42			2.47	BA	

*p<.05 **p<.01 ***p<.001

<표 7> 맞벌이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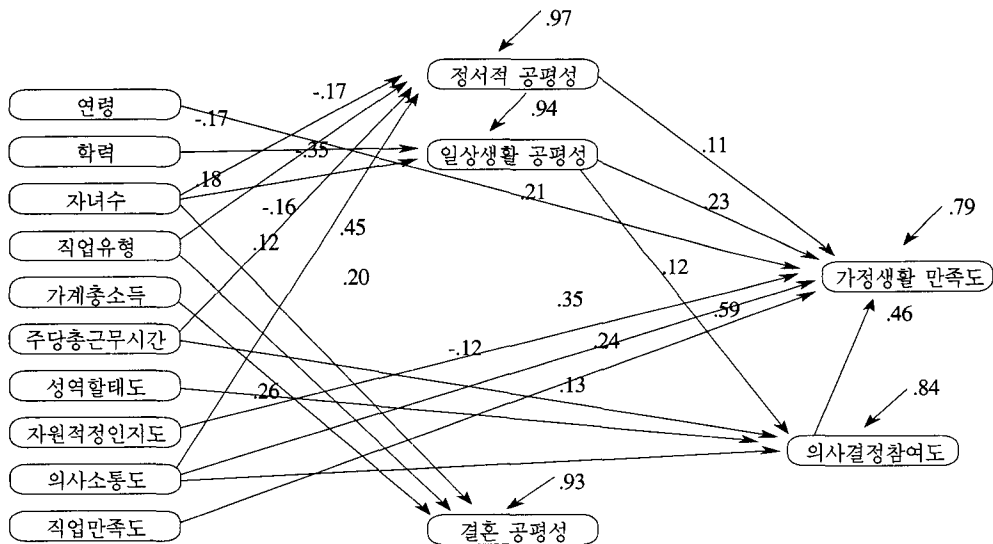
독립변인		종속변인		정서적 공평성		일상생활 공평성		결혼 공평성		의사결정 참여도		가정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연령	-.01	-.02	.00	.01	-.02	-.09	.11	.12	-.19	-.21***		
	학력	-.07	-.08	-.16	-.17*	-.06	-.15	.05	.03	.02	.09		
	자녀수 ^a	-.15	-.17	-.46	-.35***	-.11	-.12*	.11	.02	-.05	-.07		
	직업 유형 ^b	.23	.18 ***	.07	.08	.13	.20***	.08	.08	.06	.06		
	가계총소득	.00	.02	.02	.09	.25	.26**	.05	.05	.09	.09		
	본인의 소득	.05	.03	.02	.08	.06	.07	.09	.10	.08	.01		
	주당 총 근무시간	-.22	-.16*	-.17	-.04	-.15	-.08	-.11	-.12*	-.00	-.00		
	성역할태도	.14	.11	.10	.12	.12	.05	.19	.13*	.09	.07		
	자원적정인지도	.06	.01	.04	.09	.08	.06	.05	.06	.30	.35***		
	의사소통도	.69	.45***	.10	.10	.08	.09	.16	.39***	.25	.59***		
직업만족도	.04	.13	.05	.06	.07	.09	.09	.11	.20	.24**			
공평성 ^c	정서적 공평성							.10	.09	.12	.11*		
	일상생활 공평성							.15	.12*	.19	.23**		
	결혼 공평성							.09	.09	.08	.04		
의사결정 참여도										.38	.46***		
상수				.99		.80		.30		2.49		.36	
R ²				.24		.14		.17		.26		.61	
F비				3.22**		1.57		2.25***		2.46***		10.21***	

*p<.05 **p<.01 ***p<.001

a: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1, 자녀가 1명인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b: 직업이 관리직 또는 전문직인 경우를 1, 사무직인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c: 공평성 인지도는 공평한 관계 집단을 1, 불리한 및 유리한 관계 집단을 0으로 둔 가변수이다.



<그림 1> 맞벌이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표 8〉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효과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인과효과	
연령	-.118	-.21	-	-.210	.092
학력	.193	-	일상생활 공평성 ·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9	-.009	.202
자녀수	-.100	-	정서적 공평성 경유 : -.025 일상생활 공평성 ·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24	-.049	-.051
직업 유형	.086	-	정서적 공평성 경유 : .019	.019	.067
주당 총 근무시간	-.053	-	정서적 공평성 경유 : -.027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64	-.091	.038
성역할태도	.224	-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66	.066	.158
자원적정인지도	.380	.35	-	.350	.030
의사소통도	.405	.59	정서적 공평성 경유 : .057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179	.769	-.354
직업만족도	.403	.24	-	.240	.163
정서적 공평성	.112	.11	-	.110	.002
일상생활 공평성	.136	.23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6	.236	-.100
의사결정 참여도	.252	.46	-	.460	-.208

도($\beta=.46$), 일상생활 공평성($\beta=.23$), 정서적 공평성($\beta=.1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가정생활만족도의 전체 변량의 61.0%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경변인 중 자녀수, 직업 유형, 주당 총 근무시간, 의사소통도가 정서적 공평성을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과 자녀수는 일상생활 공평성을, 주당 총 근무시간, 성역할태도, 의사소통도, 일상생활 공평성은 의사결정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맞벌이 부인의 배경변인, 공평성 인지도,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맞벌이 부인의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배경변인이 공평성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를 경유하여 종속변인인 가정생활만족도에 작용하는 인과효과는 〈표 10〉과 같다. 중회귀분

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투입된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10개의 배경변인(11개의 변인 중 10개 변인)이 공평성 인지도 변인(3개 변인)과 의사결정 참여도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 의사소통도($\beta=.59$), 자원적정인지도($\beta=.28$), 직업만족도($\beta=.28$), 학력($\beta=.18$), 연령($\beta=-.39$), 주당 총 근무시간($\beta=-.13$) 등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인 중 일상생활 공평성($\beta=.26$), 결혼 공평성($\beta=.19$), 의사결정 참여도($\beta=.13$)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가정생활만족도의 전체 변량의 65.0%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경변인 중 직업 유형과 의사소통도가 정서적 공평성을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유형, 성역할태도,

〈표 9〉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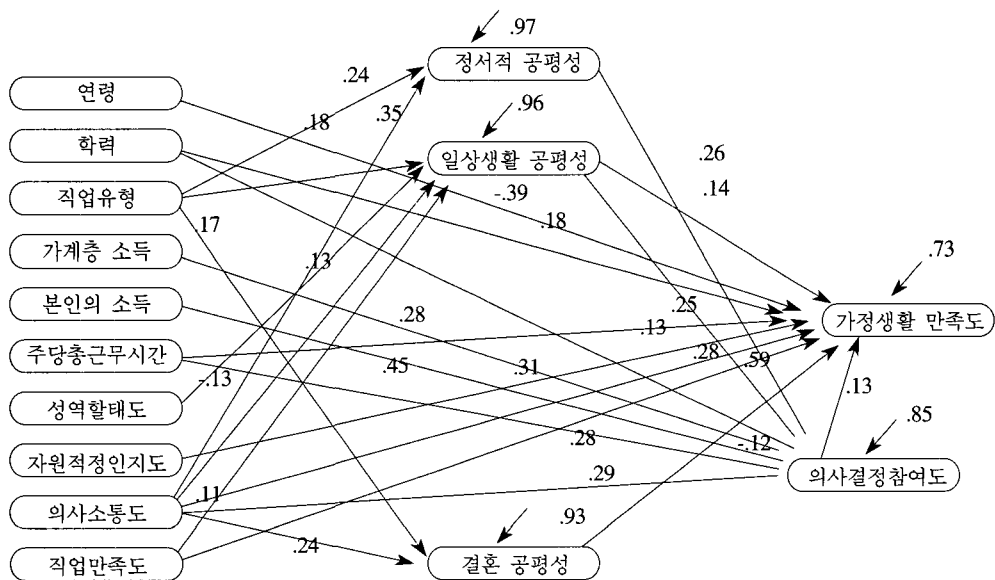
독립변인		종속변인		정서적 공평성		일상생활 공평성		결혼 공평성		의사결정 참여도		가정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연령	.01	.02	.04	.05	.05	.11	.00	.05	-.24	-.39***		
	학력	.05	.05	.05	.06	.02	.07	.14	.28**	.17	.18**		
	자녀수 ^a	-.07	-.07	-.01	-.00	-.00	-.05	.11	.01	-.00	-.04		
	직업 유형 ^b	.12	.24***	.11	.18*	.09	.17*	.08	.09	.05	.05		
	가계총소득	.06	.01	.01	.02	.04	.07	.28	.31**	.00	.07		
	본인의 소득	.05	.05	.00	.09	.09	.08	.13	.15*	.09	.09		
	주당 총 근무시간	-.07	-.07	-.08	-.11	-.10	-.08	-.11	-.12*	-.11	-.13*		
	성역할태도	-.10	-.07	-.24	-.13*	-.00	-.11	.00	.03	.03	.05		
	자원적정인지도	.08	.08	.09	.11	.07	.07	.10	.10	.27	.28***		
	의사소통도	.34	.35***	.25	.13*	.21	.24***	.16	.29**	.25	.59***		
직업만족도	.09	.07	.13	.11*	.01	.04	.07	.07	.16	.28***			
공평성 ^c													
	정서적 공평성							.10	.14*	.11	.03		
	일상생활 공평성							.17	.25**	.13	.26***		
	결혼 공평성							.07	.07	.11	.19*		
의사결정 참여도										.10	.13*		
상수				.79	1.82	-.14	2.35			1.37			
R ²				.15	.13	.13	.31			.65			
F비				1.95**	1.51	1.68	3.16***			11.88***			

*p<.05 **p<.01 ***p<.001

a: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1, 자녀가 1명인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b: 직업이 관리직 또는 전문직인 경우를 1, 사무직인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c: 공평성 인지도는 공평한 관계 집단을 1, 불리 또는 유리한 관계 집단을 0으로 둔 가변수이다.



〈그림 2〉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표 10>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효과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인과효과	
연령	-.118	-.39	-	-.390	.184
학력	.233	.18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45	.225	.008
직업유형	-.105	-	정서적 공평성·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4 일상생활 공평성·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5 결혼 공평성 경유 : .003	.012	.083
가계총소득	.037	-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48	.067	-.030
본인의 소득	.057	-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25	.025	.032
주당 총 근무시간	-.058	-.13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27	-.57	.099
성역할태도	.054	-	일상생활 공평성·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1	-.001	.055
자원적정인지도	.510	.28	-	.280	.230
의사소통도	.548	.59	정서적 공평성·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6 일상생활 공평성·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1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41	.694	-.146
직업만족도	.348	.28	일상생활 공평성·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04	.284	.064
정서적 공평성	.120	-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25	.025	.095
일상생활 공평성	.246	.26	의사결정 참여도 경유 : .039	.299	-.058
결혼 공평성	.139	.19	-	.190	-.051
의사결정 참여도	.324	.13	-	.130	.194

의사소통도, 직업만족도는 일상생활 공평성을, 직업 유형, 의사소통도는 결혼 공평성을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력, 가계총소득, 본인의 소득, 주당 총 근무시간, 의사소통도, 정서적 공평성, 일상생활 공평성은 의사결정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5.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의 인과관계 비교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의 인과관계를 비교해 보면, 맞벌이 남편의 경우, 공평성 인지도 중 정서적 공평성과 일상생활 공평성만이 직접 또는 직·간접으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맞벌이 부인의 경우는 정서적 공평성과 일상생활 공평성, 결혼 공평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

벌이 남편은 일상생활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만이 의사결정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부인은 정서적 공평성 및 일상생활 공평성 인지도가 의사결정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결정 참여도의 경우는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 모두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부인의 경우 공평성 인지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맞벌이 남편의 경우는 의사결정 참여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리고자 한다.

- 1) 맞벌이 남편의 공평성 인지점수가 맞벌이 부인의 공평성 인지점수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평성 인지도에서 남편과 부인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공평성 인지도에서는 남편은 유리한 관계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부인은 불리한 관계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 공평성 인지도에 따른 의사결정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 남편과 부인 모두 정서적 면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역할들을 공평하게 분담할 때, 가정내 주요 사항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3)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배경변인이 공평성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다만 맞벌이 남편에 비해 부인의 공평성 인지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인이 부부간의 공평성 문제에 관심이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부부간의 공평성 확보 여부가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의사소통도는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도는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론, 공평성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까지 미쳤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만족의 근원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맞벌이 부부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 유형을 남편

과 부인 모두 사무직 이상인 경우로 한정시킴에 따라 대상표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간의 면밀한 부부관계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합산적 측정 방법에 의한 정서적·일상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총체적 측정법에 의한 결혼 공평성 인지도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연구 결과, 두 측정법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장·단점도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해도 좋을 것이며, 문항 수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와 자녀간 관계와 같은 다른 친밀한 관계들의 연구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평성 인지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앞으로 연구에서는 공평성·불공평성 집단을 유형화하여 연구함으로써 불공평 집단에 속하는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본 연구의 의사결정 참여도 척도는 맞벌이 부부의 특성을 살린 몇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연구에서는 직업-가족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차별화 된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4)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직종을 고려하여 공평성 인지도,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거나 가정생활스트레스와 같은 불만족 변인과 연결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도와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에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들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평성의 개념

을 가정관리 분야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가정관리 연구 범위를 넓혀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 이념과 근대적 사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부부간의 공평성 문제를 인식시킴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점차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사무직, 관리 · 전문 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숙재, 허경옥, 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 과 공평성 인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 박정희(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07-122.
- 이정우, 강기연(2000). 도시주부의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합산적/총체 적 측정방법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8(5), 41-54.
-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3), 559-584.
-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6(9), 139-152.
- Aida, Y. & Falbo, T. (1991).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resources and power strategies. *Sex Roles*, 24, 43-56.
- Bagarozzi, D. (1990). Marital power discrepancies and symptom development in spouse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J of Family Therapy*, 18, 51-64.
- Blanding, L. G. (1995). Relational equity and household division of labor as predictors of marital, parental, and work satisfaction for dual-earner men and wome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h.D.
- Blood, R. O. & Wolfe, D. (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The Free Press.
- Danes, S. M. (1998). Multiple roles,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and satisfaction with level of living.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6(4), 401-424.
- Davidson, B. (1984). A test of equity theory for marital adjus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36-42.
- DeMaris, A. & Longmore, M. A. (1996). Ideology, power, and equity: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3), 1043-1071.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ke, J. E. L. (1988). An investigation of perceived equity in dual-earner marriages. University of Minnesota. Ph.D.
- Gauthier, D. K., Forsyth, C. J., & Bankston, W. B. (1993). The effects of wife's occupation on the structure of decision-making authority in the offshore oilworker's family. *International J of Sociology of the Family*, 23, 87-98.
- Geasler, M. J. S. (1990). Marital Equity among dual-career couples: A longitudinal perspectiv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h.D.
- Gilbert, L. A. (1988). *Sharing it all : The rewards and struggles of two career families*.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Gray-Little, B. & Burks, N. (1983). Powe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A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93(3), 513-538.
- Halloran, E. C. (1998). The role of marital power in depression and marital distres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3-14.
- Hatfield, E. & Traupmann, J. (1981). *Intimate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rom equity*

- theory. In S. Duck, & R. Guilmore(Eds.), *Personal relationships 1: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pp. 165-178). New York: Academic Press.
- Kimball, G. (1983). *The 50 · 50 marriage*. Bacon press.
- Lindahl, K. M., & Malik, N. M.(1999). Observa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power relations with parenting in the Tria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20-331.
- Lowell, J. B. (1995). Perceptions of negotiating power in dual income couples where the wife earns more in contrast to dual income couples where the husband earns more(marital conflict). Pacific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Ph.D. (Abstracts).
- McQuillan, J. (1998). Gender and marital power: Explaining the division of labor, perceived equity, and distress among two earner couples.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Ph.D.
- Mirowsky, J. (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n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592.
- Rachlin, V. C. (1987). Fair vs equal role relations in dual-career and dual-earner families : Implications for family interventions. *Family Relations*. 36. 187-192.
- Risman, B. J. & Johnson-Sumerford, D. (1998). Doing it fairly : A study of postgender marriag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23-40.
- Sanfilippo, F. S. M. (1997). Perceived equity versus self-concept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of retirement-age working wom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h.D.
- Schafer, R. B. & Keith, P. M. (1980). Equity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4). 430-435.
- Sexton, C. S. & Perlman, D. S. (1989). Couples' career orient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33-941.
- Shukla, A. (1987). Decision-making in single- and dual-career families in India.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621-629.
- _____ & Kapoor, M. (1990). Sex role identity, marital powe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dle-class couples in India. *Sex Roles*. 22(11-12). 693-706.
- Sprecher, S. & Felmlee, D. (1997). The balance of power in romantic heterosexual couples over time from "his" and "her" perspectives. *Sex Roles*. 37(5/6). 361-380.
- Steil, J. M. (1997). Marital equality: Its relationship to the well-being of husbands and wives. Thousand Oaks. CA: Sage.
- Tichenor, V. J. (1999). Status and income as gendered resources :The case of marital power.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638-651.
- Traupmann, J., Petersen, R., Utne, M., & Hatfield, E. (1981). Measuring equity in intimate relation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467-480.
- VanYperen, N. W. & Buunk, B. P.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87-309.
- Walster, E. & Walster, G. W. (1975). Equity and social justice. *J of Social Issues*. 31(3). 21-43.
- Wiersma, U. J. & Van den Berg, P. (1991). Work-home role conflict, family climate, and domestic responsibilities among men and women.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1207-1217.
- Zvonkovic, A. M. & Schmiede, C. J. (1994). Influence strategies used when couples make work-family decisions and their importance for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2). 182-189.